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歐洲大戰의 今後展望

一

獨軍이 諸戰에서 聯合軍을 擊退시키어서 英國의 政變을 이르키고 다시 巴里의 市民을 戰慄시키고 開始한지 不過 十餘日에 그 諸國을 長驅席卷하는 것은 勿論이요 마지노線까지 突破하여서 佛國의 內閣改造와 國軍總帥의 更迭을 不得已케 한바 이제 英佛軍이 能히 獨軍의 猛威를 막어서 前大戰때와 가치 獨軍의 後退를 보게 될는지 드디어 佛國도 白耳義 和蘭과 가튼 運命을 免치 못할는지 今後 數日間의 戰局의 推移를 기다리어서 그 大勢를 推斷할수 밧게 업슬것이다. 지금 한편으로는 伊太利가 獨逸에 參戰하여 올것이라 하는 音이 漸漸濃然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米國의 參戰說이 漸漸濃厚해지지안는가 그러나 果然 英佛의 敗戰을 袖手傍觀하게는가等 議論이 紛紜하되 米國은 國內形便으로 아조 近間에는 곳 參戰하게되지못할 것이요 伊太利도 좀더 獨軍의 進出하는 形勢를 바라보고잇는 듯하니 結局 그 兩國의 動向도 今後 數日間의 戰局의 推移를 딸아서 크게 左右될것이라 이러케보아 이 지음의 歐洲戰亂의 將來를 決定하는 重要한 고비로 보지아늘수업는것이다.

二

아직까지는 英佛聯合軍이 甚히 不利한 處地에잇는것이 事實이다. 첫째 獨軍이 所謂 前大戰때의 『루덴돌프戰法』을 되풀이하는것은 事實이지만은 蘭白國境을 엿보는듯 突然 諸國을 蹂躪하며 瑞典과 빨칸에 이러큼듯 蘭白으로 突入하며 지금도 巴里陷落을 爲主할째 또는 一擧 英本土의 空襲을 着手할지 擊東擊西의 態度를 兼하엿다가 優勢한 空軍의 掩護와 最新裝備의 機械化部隊가 가장 그戰法에 適宜한 모양이요 둘째 東部에 對한 後顧의 憂慮가업고 또 지그프리드線에 엇서서 兵員의 거의 全部를 前線에 내 보낼수가 엇는 것이요 셋째 伊太利의 參戰如何를 不拘코 地中海方面에서 그는 嚴然히 英佛의 海軍을 牽制하는것이요 넷째 開戰初로부터 佛國은 比較的 戰意가 弱하얏섯는데 지금 마지노線의 突破로 因하야 國內人心의 動搖가 甚함을 免치못할 것인즉 獨逸의 開戰初와가치 英佛離間策을 쓴다면 그역시 뜻 成功치 못하리라고 보기도 困難하려니다. 勿論 그러타고 英佛의 實力을 低下로 볼것도아니요 더구나 英國人獨特의 粘着力을 忽하게질것도 아니다. 장차 英國이 米國의 同情을 十分十 利用할것은 더말할 나위 업고 蘇聯과 伊太利에 向해서도 어떠한 權謀術數를 쓸지 실로 豫測키 어려운바이다.

三

그런데 獨軍의 攻勢에 應하여 伊太利는 動員態勢를 整備하고잇고 米國도 루즈벨트大統領의 三期出馬가 有利해지는 同時에 軍備의 大擴充이 無條件 進行되고 聯立內閣說까지 傳하는데 比하여 일지기 獨逸과 한께 波蘭을 瓜分하고 다시 芬蘭을 얻어 발틱 覇權을 세운 蘇聯은 도리어 무거운 沈默을 지키고잇다. 勿論 對芬戰爭에서 그는 國威를 떨어트리엇고 또 經濟의 莫大한 損傷을 엇어 서 調整을 하는것일지도 모르나

國府의 使命은 加重!

答禮使節團 一行招待會서 米內首相人事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二十一日 午後七時부터 首相官邸에서 國民政府答禮使節 正使 陳公博以下 一行의 歡迎會를 열고 主賓으로 陳公博正使 褚民誼副使를 비롯 一行二十五名을 招待, 主人側으로부터 米內首相以下 各閣僚 近衛, 原樞府議長 內閣書記官長 各參議 各省次官 陸海軍 外務 興亞院關係者 多數出席下에 米內首相으로부터 國民政府使節에 對하여 人事가잇고 帝國의 國民政府에 對하여 帝都에서 親히 交驩할 機會를 어든것은 帝國政府가 가장 欣幸으로 여기는바로 國民政府의 新事態에 對한 認識을 益益 深刻히하여 交戰을 繼續하고잇스며 最近에는 歐洲戰事가 새로 展開됨에 따라 國際情勢는 더욱 複雜하게되어 新中國의 前途에는 多難이 잇슬것이나 國民政府의 健全한 成長을 期하기 爲하여는 今後 더욱 努力을 할 必要가 잇다고 맷는다 어제 民生 帝國으로서는 이사이에 處하여 一切 新支那와 帝國의 共同目的인 東亞新秩序建設의 事業에 着着進行되는 障害를 克服突破하여 東亞新秩序를 完遂하기를 期하고잇는 바이다 國民政府에 對한 使命은 今後 더욱 重하다 고생각한다 (寫眞은 米內首相과 陳專使)

答禮使節參內

【東京電話同盟】國民政府答禮使節 陳公博 褚民誼 林柏生 陳君慧等 一行은 二十一日 午前十時 宮中에 參內 하여 三宮家에 御記帳한後 首相官邸에 들어가 米內首相을 訪問하고 午後에는 明治神宮 靖國神社에 參拜할 豫定이다

도 두가지에 對한것은 어느 程度까지 推測할수있습니다 첫째 는 저의 期限이 언제 실로 이 주인에게 彼我의 比較的 短期로 굿 기回하리라는 것이요 둘째는 敗戰한 때의 英國은 딸을 것이 오르 이미 米國의 相當한 老熟한 것 어 老熟國에는 더 一層老熟의 길을 밟지 아니할까 하는 것이 나 라고 는 오늘 이럿케 말할것이 업습니다 다.

先進經濟國으로서 할 것이 업지 안할 것이오 로 저물어가는 學說도 더 지 그것은 今後 戰局에 따라서 ... 이구나 그러나 今後 獨逸의 伊太利 影響이 相當히 클것으로 미루어 우리는 적이 ... 다.

獨軍, 英佛海峽에 到達

聯合軍의 連絡을 遮斷

아브빌, 아미안等各要衝占領

【伯林廿一日發同盟至急報】獨軍은 廿一日 北佛戰線에서 아라스, 아미안, 아브빌等 各要衝을 逐次占領하고 그先鋒은 드디어 英佛海峽에 到達하여 聯合軍의 連絡을 遮斷하엿다

【伯林廿一日發同盟】獨軍當局으로부터 어든 情報에 依하면 北佛에서의 獨軍先鋒은 廿一日早朝 드디어 솜므河下流 英佛海峽에서 約一〇킬로인 어브빌에 到着하엿는데 後方과 連絡을 維持하기 爲하여 有力한 步兵部隊가 續續西進中이다 今番獨軍이 到達한 어브빌은 솜므河下流의 都市로 아미안의 西北四五킬로에잇는데 約一〇킬로의 運河에 依하여 도바海峽과 連絡하는 要衝이다

佛軍團長等을捕虜

【伯林二十一日發同盟至急報】獨軍은 二十一日早朝 스와송戰線에서 佛軍第九軍團長 지로將軍及 그幕僚를 捕虜하엿다

羅馬에 大示威運動

【羅馬廿一日發同盟】廿日我防伊後方線及軍需品倉庫를 爆擊하여 多大한 損害를 주엇다

英軍, 本土로 撤歸?

佛白海岸에 英輸送船多數集結

【巴里二十日發同盟】佛政府는 二十日 國務會議에서 로안相 佛民相의 提案에 基하여 過般歸國中인 印度支那總督의 後任으로 카트로氏를 印度支那總督에 正式으로 任命하는 同時에 將來의 起用任命하엿다 (各通)

新佛印總督에 카트로氏를任命

補咸興地方法院 判事 瀧口 隆
兼全州地方法院 判事 西田勝吾
補大邱地方法院判事 ...

支那經濟發展은 自由로放任하라

大阪政經硏究會, 青木顧問과懇談

【大阪電話同盟】政經硏究會는 二十一日正午부터 外務省으로 谷大使를 訪問하고 歐洲情勢에 對한 意見을 交換한後 午後零時半부터 青木顧問을 招待하여 支那經濟問題에 關하여 懇談하엿다 青木顧問은 今後의 日支經濟問題에 關하여 다음과가튼 意見을 披瀝하엿다

一, 經濟開發問題

日支經濟關係의 財政經濟問題의 解決에 關하여 細目的인 規定은 어디까지나 避하고 原則은 法三章에 그치게하고 다른것은 兩國人의 合作에 맛기는것이 좋은 方法일것이다 經濟經營은 實施하는데는 支那人으로 하여금 自由로 經營하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方法이다

一, 通貨問題

通貨問題는 經濟問題中 가장 重要한 問題인데 그 對策에 關하여는 最善의 方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그리고 新幣制는 長江物資의 轉化와 密接한 關係가 잇는 것이므로 新政權今後의 發展과 아울러 長江貿易의 振興을 期하는 것이 緊要하다

工業所有權制度 調査委員任命

【東京電話同盟】商工省에서는 今番 工業所有權制度調査委員會를 設置하고 다음과가티 委員을 任命하엿다

企畫院部長 秋永月三 同 植田俊五 內閣書記官 坂野千里 商工書記官 稻田 ... 加藤 ... 特許局長官 ...

獨大使 谷次官訪問

【東京電話同盟】오트駐日獨大使는 二十一日 谷外務次官을 訪問하고 ...

樊城까지 廿七粁

襄北作戰大進捗

【湖北戰線二十一日發同盟】二十日 襄北戰線의 我軍은 新野南方二十키로 地點에서 敵을 擊破하고 樊城을 向하여 突進 敵의 退路를 遮斷하고 二十一日午前九時 樊城東北方 二十七키로 地點에 進出하엿다 白河를 渡河한 我軍은 敗敵을 追擊하여 樊城과의 距離는 二十七키로에 不過하다 그리고 二十日午後 敵을 追擊中인 各部隊는 襄北方面의 敵을 包圍殲滅하고 二十一日正午 新野東北方에서 敵의 主力을 擊破하엿다

獨軍, 今週中에

英佛海峽諸港蹂躪?

【伯林二十日發同盟】獨軍當局에서는 佛國의 戰意를 喪失케하여 英佛離間을 圖하는同時에 英佛海峽諸港을 今週中에 占領할 意圖를 가지고 잇다고 한다

【伯林二十日發同盟】北佛戰線의 獨軍은 二十日 英佛海峽에 到達하여 아미안 어브빌을 占領하고 英佛連絡을 遮斷하엿는데 今後 獨軍은 北方으로 轉進하여 佛海岸의 諸港을 占領하고 英國에 對한 攻擊基地를 確保할 것으로 豫想된다

獨伊密約說否定

獨逸政府側

【伯林二十日發同盟】獨伊間에 密約이 잇다는 說이 傳하여 各方面에 非常한 反響을 일으키고 잇는데 獨逸政府側에서는 이를 否定하고 잇다 獨伊兩國은 어떤 새로운 約定을 締結하엿다는 報道는 全然 根據가 업는 것이라고 하며 獨伊兩國의 緊密한 關係는 變함이 업다고 한다

辭令

(二十一日發令)
補光州地方法院長 判事 本多公男
判事 五井 ...
補京城地方法院部長 判事 金子 ...
補大邱地方法院長 判事 ...
補釜山地方法院長 ...
補咸興地方法院長 判事 長谷川 宏
補全州地方法院長 判事 荻 ...
補新義州地方法院長 判事 伊藤 東三郎
補光州地方法院木浦支廳 判事 小松 ...
補咸興地方法院判事 ...
補全州地方法院判事 天野 春吉
命豫審掛 判事 瀧口 隆

今後의 中國建設에 貴國援助를切望

陳公博氏談話發表

【東京電話同盟】國民政府赴日答禮使節으로서 二十一日入京한 陳公博氏는 午後五時半 帝國호텔에서 記者團과 會見하고 『日本記者에 際하여』 라고 題하여 如左한 談話를 發表하엿다

今番 我國民政府의 改組還都에 當하여 貴國政府가 阿部大使及 國民使節團을 南京에 派遣하여 祝賀를 하여준것에 我國朝野가 感激하여 마지안는바로 國民政府는 我等을 貴國에 派遣하여 特派使節로서 謝意를 表하기로 되엿다 (中略) 中日和平의 前途는 오로지 兩國朝野의 協力에 기대리지안흐면 안된다 中國의 政府와 國民은 어데까지나 中國統一의 完成에 努力하여 全面的 和平을 實現할 最大의 決心을 가지고 和平方案實現에 努力하여 永久和平의 礎石을 奠定할 最大의 誠意를 가지고잇다 今日에 임하여 實踐에 옮기는것이 무엇보다 必要하다 그러나 理論보다도 事實로써 表現하여야 할것으로 中國人民은 다시 中國에 有利한 것과 日本에 有利한것을 알게되는 同時에 日本國民에 알리지안흐면 안된다 그리고 東亞에 有利하다는것을 알리지안흐면 안된다 中國의 和平이 中日兩國 그리고 東亞에 有利하다는것을 그리하여야 비로소 兩國民은 共同의 利害關係를 가지고 새로운 時期에 들어가게 될것이다 國民政府의 成立을 기회로 어때 새로운 建設을 遂行하게되는 것이 東亞新秩序의 前途에 和平建設을 하여 東亞經濟提携의 曙光을 보게되는 것이다 眞心으로 重慶政權이 마지안는바이다 그러나 重慶政權은 아직도 誤謬의 抗戰을 繼續하고 잇다 戰爭은 長期戰이 되고 英蘇 佛大戰의 影響도 잇슬것이며 나아가서는 國際經濟의 重大한 事態를 몰아오는 時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東亞의 新秩序를 建設하기 爲하여 共同의 努力을 하여야 할 바로 이때 國民政府가 同心協力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兩國民의 國民이 되는것은 今後復興과建設에 依하여 滿心誠意로써 協力을 바라는 바이다 그리하여 國民은 또한 貴國國民의 援助를 엿음에 그 지기를 바라며 今後 貴國國民이 誠意로써 援助를 하여 주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日滿實業協會

昨日東京서定時總會

【東京電話同盟】日滿實業協會에서는 二十一日午前八時부터 帝國호텔에서 定時總會를 열고 來賓으로 滿洲國民政大臣 呂榮寰氏以下 關東州國務院長官 日本側으로부터 商工 外務 興亞院關係官 日本銀行關係者 各經濟團體代表 大藏省主稅局長 東條外務省通商局長 滿洲國在滿日本大使館商務參事官等 出席下에 協會의 事業報告와 決算報告가잇고 다음과가튼 議案을 審議 決定하엿다 協會役員任滿期에 依하여 改選한 結果 八田嘉明氏以下 全員이 重任되고 新役員으로 八田會長以外에 副會長 五百條名을 選任하엿다 의 人事가잇슨後 議事에들어가 다음과가튼 方法을 決定하기로 되엿다 東亞經濟懇談會의 運營에 關하여 다시 日滿兩國의 意見을 決定하기로 되엿다

一, 安奉線經由大陸旅客의 運輸施設의 擴充與望
一, 日滿間交通運輸通信의 積極的 擴充整備에 關한 件
一, 大陸에 對한 航空及各種交通의 連絡機關設置與望
一, 滿洲國에 對한 生產資材供給增加與望
一, 中小工業對滿移轉에 關한 具體的方策을 審議

時局對處聲明

支那各地에서 의 發表는 ... 局對處聲明을 發表하엿다

滿洲國企畫處擴充

【新京二十一日發同盟】滿洲國政府는 ...

滿洲國產業部改革

【新京二十一日發同盟】政府는 現下內外情勢에 비추어 農產部門을 强化擴充하는 同時에 原始林產業의 育成調整을 任務로하여 ...

聯合軍, 獨軍을擊退

佛白國境시에르드河岸서

【倫敦二十日發同盟】英軍司令部 戰報는 依然 發表中이다 北佛 스카르드河南方의 獨軍機械化部隊는 二十日 佛白國境의 시에르드河岸의 聯合軍陣地에 對하여 反復攻擊을 하엿는데 聯合軍은 有效히 이를 擊退시켓다 이攻防戰의 成功은 自由發展의 戰鬪에 依한바 多大하다 그리고 는 軍需相배리인 勞働相 네빌

英, 軍需工業 統制策協議

【倫敦二十一日發同盟】二十九日 英軍需工業統制策에 關하여 英國政府는 軍需相과 勞働相의 協議를 거쳐 그 新統制計畫의 細目에 關하여 協議한結果 그眼目은 重要軍需工業의 政府管理及其他軍需工業全部에 對한 極度의 利潤統制를 强化하는것으로보인다

軍艦津輕進水式

【橫須賀電話同盟】二十一日午後 四時 橫須賀鎭守府發表 일직부터 海軍工廠에서 建造中의 軍艦津輕은 오는六月五日午後五時及川橫須賀鎭守府長官臨席下에 進水할터이다

벳사라비아方面서

蘇聯軍演習을開始

戰神跫音에 빨칸諸國戰戰兢兢

【부카레스트廿日發同盟】十九日 가렐칸에 波及한 緊張에 蘇聯이 沈默을 지키고 잇는것이 一大不安을 주는 中이다 그러나 伊太利外相의 參戰을 示唆한 演說에 依하여 一層緊張味를 더하엿다 또 빨칸諸國의 戰爭心理는 또 國 다시 蘇聯軍의 動向에 對하여 벳사라비아方面에서 蘇聯軍數個師團의 演習開始의 報에 依하면 蘇聯軍 部隊의 集結이 報道되어 卽時 이에 介入하려고 準備하고 잇다고 한다

英空軍 各戰線서 活躍

【倫敦二十日發同盟】英空軍省은 二十日發表

一, 英空軍은 十九日夜도 獨軍後方連絡에 對하여 攻擊을 繼續하여 브뤼셀方面에서 停車場橋梁을 空爆하여 多大한 損害를 주고 停車場을 破壞시켯다
一, 에느地區에서 獨軍戰車集團에 對하여 有效히 攻擊을 加하엿고 세당附近에서는 停車中의 貨物自動車를 爆擊하여 火災를 이르키게하엿다
一, 英空軍은 獨逸北西部地方의 製油所에 對하여 有效한 爆擊을 敢行하엿는데 右攻擊을 敢行하여서 는 二機를 잃엇다
一, 聯合軍 空軍은 트론드하임附近의 해에르데스 飛行場을 空爆하엿다
一, 英空軍은 十九日夜라인河流域을 爆擊하여 敵軍用機를 破壞 시켯다
一, 하려에 空軍部隊는 十九日 西部戰線에서 獨空軍大編隊와 空中戰을 展開하여 獨機十一機를 擊墜하엿는데 그中八機는 戰鬪機이엇다
一, 英空軍은 十九日夜라인에 對하여 空爆을 敢行하여 敵

西歐電擊作戰은 히總統自身이計畫

괼링將軍, 記者團에言明

【伯林廿日發同盟】獨逸國防將軍 괼링元帥는 廿日 西部戰線의 大本營으로부터 伯林에 歸還하여 記者團에게 다음과 가티 發表하엿다 今次作戰에 關하여 히틀러總統의 軍事的 天才의 結果에 依한것이다 戰線의 勝利는 全然 히總統의 計畫에 基한것이다 이 作戰開始에 알서 數週日間에 걸쳐 昼夜를 가리지안코 모든 敵의 對抗策을 考慮하여 戰略을 硏究한 것이다 總統의 머리속에는 이미 모든 勝利가 예정되어 잇다 그러나 이에 따라 精密한 要塞의 突破도 總統의 作戰으로 한 것이다 總統은 모든 種類의 兵器에 精通하고잇는 同時에 前大戰에서의 自己의 體驗으로 兵士의 勇氣가 무엇을 意味하고 잇는가를 잘 알고 잇다 總統은 軍事上의 天才이다 捕虜도 어느 國軍을 莫論하고 國際法上의 正規軍이다 遇에는 다른 軍隊와 同樣으로 合法的 保護를 받는것이다 敵軍이 虐待를 받는 境遇라면 獨逸은 斷然 報復을 取할것이다 어느덧 敵軍이 軍服을 벗는 境遇에는 ... 命을 어든 어떠한 部隊에 對하여도 우리는 어데까지나 決定的 이 戰爭을 遂行할것이다 그리고 獨軍의 最高統帥部가 到達하기까지 海峽까지 和蘭을 拔去할 것이다 (寫眞은 히總統)

加奈陀의 大軍擴

킹首相, 議會서言明

【오타와二十日發同盟】지난三月 二十六日總選擧의 結果에 基하여 새로 招集된 加奈陀議會開院式에서 맥켄지, 킹首相은 歐洲戰爭에 對應하기爲하여 必要한 大軍備案을 提議하고 어떠한 犧牲을 하더라도 今年度分만으로도 七億弗에 達한다고 明白히하엿다 킹首相의 演說要旨는 다음과 갓다

加奈陀政府의 今年度豫算은 加奈陀有史以來의 彪大한 것으로 十一億弗以上에 達하고잇다

그中七億弗은 軍事費에 充當될터이다 政府가 目下着手하고잇는 軍備計畫의 內容은 다음과 갓다
一, 艦行場八十個所新設
一, 機關九十隻建造
一, 沿岸防禦用으로 包含한百七十五個의 軍事營造物及要塞建設
一, 英本國其他에 보내기爲하여 動車輛三千臺를 製作할것
第二回民團의 歐洲派兵案을 發表하엿다

過渡的措置

印度側輸入制限의

【新嘉坡二十日發同盟】印度政府는 二十一日로써 輸入制限을 實施하는데 이에依하여 輸入을 許可制로하고 印度向 貨物에 對하여는 臨時的으로 五月十五日前의 契約履行을 爲하여 二十七日까지 印度에 到着하는것은 勿論 六月十九日까지의 分으로 許可證이 必要치안타고 發表하엿다

四閣僚會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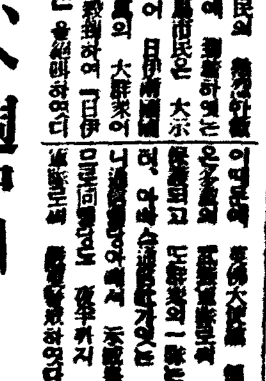
貿易關係

【東京電話同盟】政府는 歐洲戰局 擴大에伴한 我海外貿易의 變化에 對處하려고 二十一日午後二時 首相官邸로 貿易關係 四閣僚會議를 開催하고 米內首相 有田外相 島田藏相 藤原商相과 渡邊記官長 廣瀨法制局長 竹內企畫院總裁 等出席하야 物動計畫을 中心으로하여 貿易振興策을 圖議하엿다 이는 第二次歐洲大戰이 今後益益擴大되고잇는 現狀으로서는 戰局의 豫測이 極히 困難할뿐아니라 對歐貿易은 全혀 杜絶狀態로 新貿易政策을 樹立할 必要가 잇다 여 重要協議를 하엿다

市況 (廿一日)

◆生糸後引◆
前橋 一五三〇 先限 一五二六

百二十億の貯蓄の最良手段として推奬 ...
(의 으로서)



大同生命の保險!
(의)

★本年度의國民貯蓄의目標는百廿億엽니다。
★어것을達成하는것은우리의責任, 아니義務입니다。
★모쪼록國民貯蓄에가장相副한大同生命의保險으로어義務를다해주십시오!

◎保險案內贈呈

京城支店
京城·南大門通

本社·大阪·土佐堀

土地賃貸價格調査

收益을基礎로課稅標準改正

三個年繼續事業·四百卅萬圓의經費로

총독부에서는 소화십오년부터 세금부담의 실정을 조사한결과 조선의 조세제도(租稅制度)의근 경향으로서 지방에따라 세금부담이 엄청나게고르지못한것 지세(地稅)·영업세(營業稅) 자본이자세(資本利子稅)등 수익세(收益稅)의 각세금사이가 고르지못한것과 지세부담이 고르지못한것의 세가지점이 드러낫스므로 지난사월부터 실시된 개정세제에잇서서 소득세의 이행을가지고 부담이엄청나게만흔 지방단체에주어 부담의균형을 도모하엿고 수익세에대하여서는 영업세와 자본이자세의 세율을높여 지세와의 균형을 도모하엿는데 지세부담을 고르게하는 방법으로는 과세대상(課稅對象)을변경해 법정지가(法定地價)대신에 토지수익을 기초로하는 임대가격(賃貸價格)으로 고치기로 결정하고 금년부터 삼개년계속으로 조사하여 소화십팔년도부터 임대가격에의하여 지세를부과키로되엇다

현행법정지가는 명치사십삼년부터 대정칠년까지 전후구년이나걸려 조사한것이나 그후의 토지이용의 기술과 경제계의 발전에 따라 법정지가에 의한 세금부담은 시가지택지(宅地)에잇서서는 세금이 가벼운것과 가격관계은 사십삼배 논은십삼배 밧은이십칠배나틀리고 지방적으론 북조선방이 더욱부담이 가벼운등 엄청나게 고르지못한것이 실정이다

임대가격조사에대하여서는 불원에 토지임대가격조사령(土地賃貸價格調査令)을 중추부령으로 발포하고 이법령에 의하여 세무감독국의지도감독아래 각세무서에서 관내농경지 시가지전부에대하여 한필지식 수익을조사할터인데 민간의협력을어더 실정에맛도록 하기위하여 부·군 읍·면에 조사위원회도 설치하게될터인데 실지조사에착수하기전에 재무국의지도에의하여 표준지구를선정하여 표준조사(標準調査)를할터이고 이조사는 세무서또는 세무감독국사이에 조사한결과 고르지못한점이잇슬때에 고르게하는 자료가될터이다 이와가치 모든준비가갓나 실지조사에착수하는것은 오는구월부터될터이고 이조사때문에 각세무서에는 약륙백명의 직원이 배치된다 그리고 조사비용은 삼개년간에 약사백삼십만원의거액에달하는데 초년도는 육십삼만원이다

豆腐公定價格

京畿道에서 發表

결천이상은 밧지못하게 되엿다 즉경기도에서는 이십이일부 고시로 내지식두부와 조선식두부의 소매공정가격을 발표하고 즉일부터 실시하엿는데 가격을 정하는 동시에 규격까지 발표하엿다 경기도에서는 조선두부한모에

不遇에우는秀才에게

全財産의折半提供

大邱 徐昌圭氏 十萬圓快擲

【慶北支社電話】 역경에우는 가난한 수재들을 도아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저 전재산의 절반을 제공한 독지가가 잇서 일반의 찬사를 밧고잇다 대구부 경정(大邱京町) 이정목팔십일번지 대구부회의원 서창규(徐昌圭)씨는 이십만원이넘는 재산중에서 십만원의 기부를 신청하엿다 서씨는 이기부금으로 재단법인 미산육영회(眉山育英會)를 조직하여 대구부 출생의 수재들을 도아주기를 바라는 청으로 부유을 바른하고 가난한때문에 훌륭한 머리를 가지고 잇스면서도 공부를 계속하지못하는 청년들을 위하여써달라고 약속하엿다 서씨는 전에 경북 재단법인설립에 대하여 부윤도 서씨의 쾌거에 감격하여 그뜻을잘바드어 만흔기금 무진사상 역의 상은약삼만원에 이르는데 금번그설반을육영사업에제공한것이다 (사진은 서창규씨)

商街에흐리어진德義

不正度量衡器를摘發嚴罰

이즈음 상인중에는 물건을팔기 돈을모만 남기지안코 저울과 자와 되방으로 남에서는 이달이십일부터 경찰당국에서는 이번검사에 잇서 특히 때가때이니만큼 엄밀히 행하여서 위반자는 엄벌에처하여악덕상인을일소할방침이다

秧板은大體好調

農林局關係出張員의綜合談

南朝鮮은麥類豊作·北朝鮮에水不足

묘판조성(苗板造成)을 둘러싸 오지안헛고 특별히 평안남북도 기우하여 출장중이든 농림국관계원들이 지난이십일 까지에 전부 돌아왓는데 그들이 말하는 각도의 상황을 종합하여보면 금번 농작물의 성장상황은 지금까지 대체로 양호하다는것이다

洪原郡에山火

【洪原支局電話】 이십일오전 압(?)에서 산불이 낫다

金塊密輸의首魁

北京에서共犯과押來

東署取調에따라鮮滿支에擴大

晦堂李誠熙氏 書畵展覽會

葬共同墓地附近에 疑問의少女屍體

【慶北支社電話】 대구부내 동봉(大邱府 內)공동묘지 부근에서 신원불명의 소녀의 시체가 발견되엇는데

남과북에서 모여든장사와 권각의 겨리는 제일회 전조선씨름대회는 조선씨름협회 주최 여밤산의맹장들이 출동하여열리든 대회는

왼씨름諸强豪擊退

黃州宋力士(三四)制覇

바른씨름에李泰赫、中等部에高廷立優勝

競技所要時間 五十三分(新記錄)

全朝鮮씨름大會 盛況裏圓滿終幕

본사후원아래 제일회 전조선씨름대회는 동아리 이십일오전부터 후세시십오분부터 운동장 정구장에서 계속하여 열렸다 이때엔 벌서 거상들이 힘과 살이 부닥치는 장관을 보고자 모여든 관중은 운동장입구까지 장사진을치고 역시 입추의여지없이 전개되엇다

★외씨름부 준결승전엔 황주의거상 송병귀(宋炳貴)군과 대구의맹장 나윤출(羅允出)군의 대항전은 유분에 바른봉재가 로 송군이선승하자 나군비책을 다써서 칠분여 세번이나 차웟스나 전부승부가없이 재경기로 종국으로 송군이 우승하엿다

★신포(新浦)의 이성수(李成株)군이 영변(寧邊)의 김민호(金珉鎬)군을 계속적으로 바른안다리로 물리쳐다

★중등부결승전에들어가 배재의 고정립(高廷立)군과 역시배재의 우여상(禹呂尙)군이 대전하여 이대일로접전후 패자 고군이우승하여 우승기를

(결과)

◇바른씨름부

【第四回戰】

李泰赫(松坡)2—0李三吉(楊州)
張一東(楊州)2—1金二文(京城)
洪斗杓(往十里)2—0朴大成(纛島)
金卿辰(鷺梁津)2—1李在奎(楊州)
玄東燮(京城)2—0金泰主(纛島)
韓應元(楊州)2—1韓昌文(纛島)
段聖鍾(京城)2—0林啓基(纛島)

【第五回戰】

李泰赫(纛島)2—0李吉龍(松坡)
張一東(楊州)2—1洪斗杓(往十里)
玄東燮(京城)2—1金卿辰(鷺梁津)
韓應元(楊州)2—1段聖鍾(京城)

【準決勝戰】

李泰赫(纛島)2—1張一東(楊州)
玄東燮(京城)2—0韓應元(楊州)

【決勝戰】

李泰赫(纛島)2(11:00)0玄東燮(京城)

一等 李泰赫(纛島) 二等 玄東燮(京城) 三等 韓應元(楊州)

◇왼씨름부

【第三回戰】

宋炳貴(黃州)2—0印昌星(金泉)
金珉鎬(寧邊)2—1玄寶彦(黃州)
李成株(新浦)不戰一勝

【準決勝部】

宋炳貴(黃州)2—0羅允出(大邱)
李成株(新浦)2—0金珉鎬(寧邊)

【決勝戰】(所要時間五十三分)

宋炳貴(黃州)2(11:00)0李成株(新浦)

一等 宋炳貴(黃州) 二等 李成株(新浦) 三等 金珉鎬(寧邊)

◇中等部

【第二回戰】

禹呂尙(培材)…棄權 金昌延(徽文)
高廷立(培材)2—0李孝鎭(培材)
金永輔(商工)2—1韓應國(商工)

【準決勝戰】

高廷立(培材)2—0金永輔(商工)
禹呂尙(培材)2—0韓澤浣(大東)

【決勝戰】

高廷立(培材)2(1:0 1:0 0:1)1禹呂尙(培材)

一等 高廷立(培材) 二等 禹呂尙(培材) 三等 韓澤浣(大東)

◇바른씨름부 ◇외씨름부

一等 李泰赫(纛島)五人勝
一等 金南龍(新浦)六人勝

十一日동안熱戰이른

一般·高專籠球리그

來廿三日에決勝擧行

大日本籠球協會 朝鮮支部主催 一般及高專籠球리그戰은 지난 십일부터 작이십일일까지 십일일동안 매일계속하여 열렸는데 一般의 戰績에서 第二部에 잇서서는 法專과 普專이 各各五戰四勝 一敗의 成績으로 決定戰은 來二十三日 午後四時半부터 府民館에서 擧行키로 되엇다

京城實業리그

鐵道2—5府廳

實業野球리그

鐵道軍優勝

京城實業野球리그戰은 二十一日午後四時 十七分부터 京城球場에서 京電의 先攻으로 開始되어 鐵道軍이 優勝

鐵道 0021000010
京電 0200020100

崔龍德君基靑拳 鬪部監督에就任

◀庭球 ◀野球 ◀籠球

今日…天氣…晴曇

婦人公論 六月号

定價 五十錢

東京 丸ビル五階 中央公論社 發行

日本 發賣

夫婦の道
幸福に就て
蘇州の支那目錄抄
湘南だより
村里の漫筆
少女の幸福
戰爭と女性

野上弥生子・河上徹太郎・谷川徹三・山川菊榮・結城哀草果・喜久字 川上・一字垣成

賣切れぬうちにすぐお求め下さい

日華職業婦人座談會

敷入り・寄席小屋 野澤富美子
家庭訪問 平野婦美子
同名異人ものがたり 鈴木信太郎
おいしい鯨肉料理の作り方 芹澤千代
家庭で出來る一坪菜園・氷野健
センチメンタ汁粉……近藤日出造
☆外米を美味しく食べるには……

女性エチケット批判

★婦人の作法と社會生活
★作法は美容の近道
★禮儀作法は心の現象
★漠然とした印象
★夫の地位に從屬しすぎるな
★不愉快な事實
★手紙の宛名
★エチケットに就て

私の歩んで來た道「靑鞜」を出て 平塚らいてう

☆妻の風景…福田榮一
☆乙女に寄する詩…菱山修三

私の好敵手

米藏にはたらく女 (山形縣庄内倉庫の女仲仕) サイクル・ハイキング

微風の對話

盲ひし學徒の妻 和田讓竈
苦惱した妻の日 生田花世
かたみの孫 村松梢風

結核克服記 貧しき母の闘病 伊藤みどり
國島療法で快癒する迄 目白常世

季節の友
山に思ひ出す人々…尾崎喜八
晩春…壽岳しづ
病み初め頃…山田珠樹

働く母性のために…鈴木舜一
子供の教育はどこに力を入れるか 佐藤瑞彦

評判の連載記事
今昔物語
旅雁日記
英雄ベートーヴェン
切符制度の話
激化せる世界大戰
現代文學の世界 靑野季吉
歐米旅日記の 野上弥生子
わが古典鑑賞 小島政二郎
樂聖の物語 野村胡堂
主婦の經濟學 原祐三
女性の國際知識 淸澤冽

對談會
夫婦生活の妙諦を語る
阿部眞之助・正木不如丘

燕の童女・川端康成
旅人・阿部知二
十年間・林芙美子
人間の復活・島木健作
美しき秩序……芹澤光治良

幸福な家族 武者小路実篤

中部版

燈불안킨自轉車만 一日八十餘件摘發
貧弱한開城府民의交通道德

創氏座談會
蘇萊面主催로

【蘇萊】부천군소래면에서는 창씨제도실시이래 일반에게 창씨에대한주지를 철저히하여 지난십칠일까지 이미 여명이창씨하였다 소래면당국에서는 면직원을 면내각부락에 파견하여 창씨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고 창씨에대한 수속등을 친절히지도하여 주는데 일반은 이신일부터 상당간이라고한다

面長이毆打傷害
被害者는警察에告訴

殷盛할鯖魚漁業
今年設網이百餘隻
不遠元山海上에捕獲戰展開

安城商工業者
慰安會를開催

【安城】안성상공협회(安城商工協會)에서는 지난 십팔일 안성무도장에서 상공업자 위안회를 개최하고 흥행을 하며 근속자를 표창하였다

楊口監理敎會에서
敬老會盛大히擧行

全朝鮮弓術大會
金浦陽谷市場市民主催

潭陽、長城等地의 棉花播種完了
降雨順調로發芽成績도良好

【木浦】증산운동중인 전남면화의 십오년도의 파종은 도、군、면당국과 면작자들에게적극장려하여 파종하도록 장려하여 지난십오일경까지 담양(潭陽)、장성(長城)、함평(咸平)등지의파종상황은 순조로히진행되어 작년보담 약오일가량일찍 파종되었으며지난십오일에 나린비는전조하다갑이 있었으나 그비로써 먼저심은씨는발아하였고다음에심은종자도 발육이잘되어지금까지로는 평순조로운 형편이라한다

時局認識訓話

【金浦】김포경찰서에서는 일반 군민에게 시국에대한인식을 더욱강화시키기위하여 지난십일부터동서조장(朝長)경부주임이 관하각면으로 출장하여 시국에 한 좌담회를 개최중이든바 지난십팔일오후여덟시부터는 동서무도장에서 좌담회를 개최하고 조장경부주임으로부터 시국에대한강화가있었다한다

安城署員異動

【安城】안성경찰서에서는금번청목(靑木) 무정(武井)양순사부장이 전출함에따라서 아래와가치 이동을발표하였다

咸興에또火災

素砂面創氏成績不良

咸南僻地에甘雨
十餘미리程度나立種에는一助

長湍郡敎育總會
高浪浦小學校서開催

自家에放火한者

京城驛西大門間의 電車線路改替要望
交通이複雜한데線路까지한편으로치우처
通行人의不便이至大

自轉車盜難頻繁

牛車에치어重傷

皇紀二千六百年 記念事業協議會

春窮克服座談會
長湍警察署에서開催

安城署司法係員創氏

創氏制度
趣旨普及講話會
平澤郡職員總動員

前科六犯의大賊
出監直後또窃盜질
開城署員이逮捕嚴重取調中

洪原軍威朴氏創氏

棉花密賣者
三名을嚴重取調

蘇來梅花七里堤 水組工事가不振
賃金이적다고人夫가안나와

桑葉發育이不良

社告

間島支社 支社長 徐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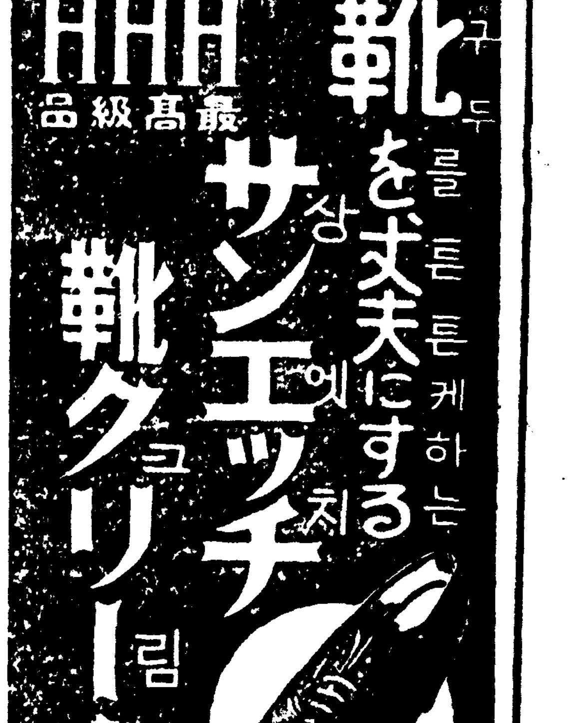
遮湖支局 支局長 薛裁衡

謹告

只今이着手의最好機 著實한副業…… 利남椎茸
東京市牛込區 進文館

警察官講義合部全書
本社 京城販賣所 電本一五九七
鮮滿警察學會

國防色羅紗專門 卸商 ミナト羅紗店
申込次第 見本進呈
釜山府宝永町一ノ二四 電話特三七六八番



여드름
업새는것으로서 完全한 世界的名品

여드름과 뾰로지로걱정하는분이 相當히만흔대 지금까지무엇을써도낫지안는다고悲觀한분도만흘것입니다 그것은 各本舖에서여러가지賣出하고잇지마는 아직完全한名品을發明하기에困難햇든것입니다……。即 여드름업새는것은 그만치至難한 究研입니다。

그런대

我キンシ化學研究所 名譽所長三輪博士는永年苦心한結果如斯한難症의여드름업새는 藥用크림「レボスキン」을發明해서 훌륭히征服한것입니다。故로무엇을써도 여드름을업새지못하든분이겨우한번으로 깨끗이나아서마음으로 기뻐해서 禮狀을만히보내 주십니다。

이것은 化粧品界의一大進步이며 또弊所化學研究部의자랑이며名譽입니다 여드름 뾰로지 무좀 기미 죽은깨 버짐 毒虫에물녓슬때에 꼭 한번試驗해주십시요。꼭充分한滿足을어드실줄압니다。그리고잘주름업새는대 전머지는대 면도후에도大端히좃슴니다。

見本希望하시는분은 三錢切手二枚와 本紙를오려서封入해보내주십시요

本舖 キンシ化學研究所

本舖 中島佐一藥房

陸海軍御用藥 一人一劑 必要한征露丸

生徒募集 公認 東亞自動車學院

長篇小說

青春茂盛 【59】

李泰俊 作
鄭玄雄 畫

고은심의것는길(六)

은심은 어쩐 저책 뻬어보기 시작하엿다.

사쪽배판(四六倍版)보다도 더 큰 호화스런 표지(表紙) 매끄럽우면서도 부드러운 고급 『아-트』지(紙)의 갈색, 재색 영근들은 새로 그린 『소묘(素描)』처럼 잠잉은 토마도처럼보드랍앗다.

그중에서 은심은 『레디-스 흠 쩌날』이란 부녀잡지를 한책 사들엇다. 나오기 전에 문득 여기서 원치권을 만나던 생각이 난다. 얼골이 어쩡하게 붉어지던것을 저다보던것 원치원이 무에라고 말을 부치엇스나 대꾸도 인사도하지 안헛것 모두 어제 처럼소상하다. 은심은 그런 생각이 불쾌함이어서 다른 책도 보지 안코 나와버리고 장으로 기지 안코 남새고피만코 명랑하고 귀말엇다.

그러나 경으로는 가기가 실터차에 『가네보』에서 반도부 서녀과 부드첫다.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사들지 안햇다.

다투어 은심이가 산것을 빼들엇다.

『아-수 감각파구나! 꼿만사듯구!』

『어쩌쩜이냐 레디-스 흠 쩌날만 읽으시는데!』

『기지배들두!』

『하렴 내라앤』

『꼿든 사람이 하렴 내겟기뭐!』

어들은 한패가 지어 『명치제과』로 갓다. 아직 오전중이어서 『빽쓰』는 여기 저기 비여잇섯다. 제일 구석 『빽쓰』를 차지하고

『난 커피-』

『난 초코렛』

『난 레몬티-!』

『난…웨 젤 맛나냐?』

『난 뭐든지 기숙사서 못 먹어보던것 좀 실컷먹엇슴!』하고, 무엇보다도 우슴애들 수리엇던것처럼 히살댄다.

『우리가 이게 마기막 방학이구나!』

『그러치 참!』

『송상해!』

『인제 한하기문 우리두 뿔뿔이 헤지는구나!』

『너까짓거허구 헤지는건 눈두 깜작 안허겟다앤』

『망할거!』

『이중에서 누가 젤 멀리 갈가?』

『거야 순덕이지뭔』

『순덕이 참 미국 구경 허구 조켓다!』

『그래두 신학(神學)만 해야된대니 어떠허니!』

『구경 삼아 가지뭐 공부하러가니뭐!』

『거지애두!』

『미국보다 더 먼데 갈사람은 업니?』

『잇지!』

『누구야?』

『경순이지 누구야』

『경순이가 어딜 가게?』

『시집』

『하하하……』

이들은 다시 명치좌로 몰려 엇다.

사진은 『디아나, 더-빈』의수연으로 세계적 명지휘가(名指揮家) 『스토코프스키-』가 나오는 『오케스트라의소녀』 어디다.

사진은 비초기시작하자 장면과장면이빠른 『템포』로 바뀌여 나간다. 수연소녀의 성격이뎡장면 보지안허서이내 그는치빠르고 날새고피만코 명랑하고 귀염성스럽게 구성되어버린다.

『게가 독생긴것두 은심이가구나!』

여대안준 경순이란 동무의감상이엇다.

『내게처럼 명랑어엇슴조케!』는의월도데가 그리심각허세서…」

사진은 발전해나갈수록 재미가난다.

그중에도은심은 『스토코프스키-』가 나오는 장면이 조왓다. 영화이면서 배우아니인몸이 나타나는것은 진실한맛이 조왓고 그 『스토코프스키-』의 머리인풍모와 노력어라기보다 신성한 맛을내는 예술가다운 일동일정 어보는 사람의 마음을 무조건하고 경건스럽게 놀렷도는것이엇다.

이날 은심은 여간 흥겹지안헛다.

『오케스트라의소녀』에서 바든 자극은 영화그것에 끄친것이아니라 미국이란 한나라의 일면을 다시 인식하는데까지 이르렷다.

미국이라면 역사가 업는나라 여기저기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들은 금찌 그대로의합중국(合衆國), 일조일석에 금광이나 해서 돈벼락을 마즌친처럼 외관으로 번지르할뿐 문법이다거나 전통이라거나 정신적인것에는 아모 보잘것이 업는것으로만 여겨와섯다.

그러나 그러케만 여긴미국의 한영화 『스크린』우에서 세계적인·지휘가 『스토코프스키-』가 나타나는것을 목격할때 은심은 『미국의힘』을 새로한가지 느끼지 안흘수업서섯다.

【訂正】昨日分 끄트로 第六行 『진한커피-』와 『향기』中間에 『를 한잔 마시엇다. 입에서는 커피-』가 漏落되엇슴.

趣味 娛樂

宣傳映畫와監督 『觀光朝鮮』完成을듯고

▼…문화영화의 제작이점차 활기를 띠우려는 요즈음 예술영화에 종사하는거을자의 손으로 『관광조선』이 제작되엇다는것은 주목할만하다. 아직 실물에 접하지안햇스므로 그성과를 어찌라는 업지만 적어도 동시에 외가지 어련곳에서 만들어내인것보다는 몰품을 빛나드로 구수한 예술적인 『테크닉』이 가미되엇슬것을 기대해도 무방할뻔이다.

▼…흔들은 『관광조선』의어를 거치 조선에 유람오려는사람 혹은 조선을 몰랏던 사람이 리하여금 조선에 온흥하자는것이여 저 잇의 사명으로 그내용도 [illegible]

수잇는대로 상품을 지배하러가 엿다는것이다.

▼…다시 말하면 따라조선에 나타나는것은 어느리거나 [illegible] 선에 나타날것은 어무리거 [illegible] 그것이 [illegible]

▼…그러면 어찌하면 어 [illegible]

雙Q生

흔들리는興行協會 明治座·若劇中心으로新團體結成?

지난십오일부터 실시된 주야흥행(晝夜興行)제도를에의하고서 자숙적단체로서의경성흥행협회(京城興行協會)가취한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가진 명치좌(明治座) 약초극장(若草劇場) 경성보총극장(京城寶塚劇場) 등각 동업자에 이르러 부쳐 협회자체의 문무인을 동감이게된동시에 마저내는 협회로부터탈퇴할 의향을 굳게한 모양이어서 근일중으로 이들새가표면화되리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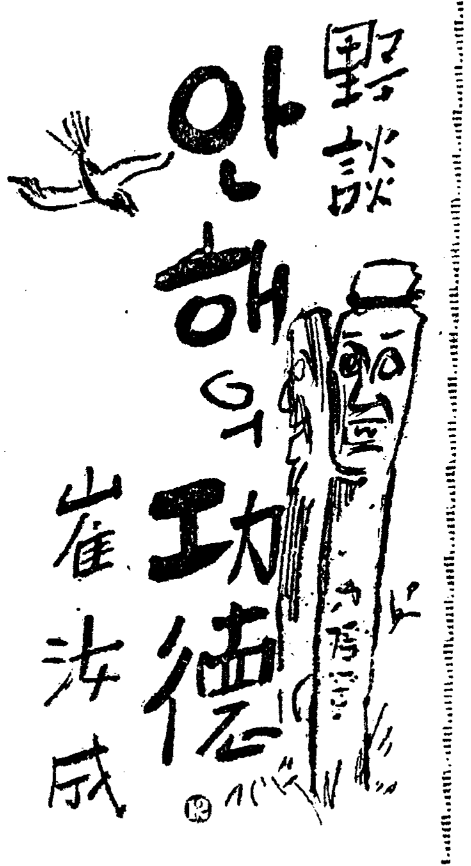
만약 어들이 탈퇴하게된다면 지금것 협회에 가입치안흔 [illegible] 가입시키어 새로이 『경성상설관연맹』을 결성할 예 대륙극장(大陸劇場) 약초(若草)등 세곳도 가입시킬 의향을가지고잇는바 여겨에는 경일(京日)『뉴-쓰』판 그외 터이므로 이러케되나면 사실

『人生의바보』京寶서封切決定

국광(國光)영화사 제공 『토비쓰』영화 『인생의 바보』는 시내 황금정 경성보총극장과 계약이 성립되어 오는 유월하순에 봉절공개할 예정이라는바 이영화는 작년도 영화 『빼끄드·레』에 제시위도 입선하여 각방면으로부터 찬사를 바든 근래에 드문 가작이라한다.

野談 안해의功德

崔海成



석규수가 벽연암으로 가서 월순이는 머리를 깍고 승이 되어서 날마다 동냥을 해다가 생활을하고 석규수는 수를 노하 돈을 맨들어서 다달이 유법사로 꼭꼭 보내고 송생의 의복과 모든것을 쥡갈이업시 듯대를 하여서 송생은 털끗만치도 군색한것이 업섯다.

그러나 의복이나 모든것이 꼭절로조차 왕래가 되는까닭에 송생은 모든것을 허씨가 보내는걸로만 알고 잇섯다.

어느어느 지내가는 세월이 번개가타서 정규수가 백연암으로온지가 벌써 일년이나되엇다. 어느날이다.

월순이가 송일갓대다가어날은 일찌기 간다는것이더 늣게 되어서 해가다넘어갈때야 절로 돌아가게되엇다. 월순이가 서쪽 으를가에대롱대롱달러서 미구에 떠러지게 되해놀 뜬심스런운얼굴로 쳐다보면서 『아이구 해가벌써 다갓네. 어쩌다 이러케 늣섯나』 말을마치며 그의두 다리사이에서는 피파소리가 나고 뚝뚝한 바람은 넓을뛰고잇다.

그는 가슴다름빠질도하엿다. 그러나 그의걸음이속히산 마를딩는헷슬때는 칩칩한거운이 온 세상을 휩싸고잇슬때다.

아직도 절은 오리가 넘어남엇다.

월순이는 쪽 홀리땀을흘리며 박씨스면서 씨근씨근하는숨소리는 자못급햇다.

자수 사뫅대기를 처다보며 암길을 접처보다.

『아-인제도 질음가자면 십리나 되는데 아 어려케 저물엇서, 응. 어렵즐을번연하 알면서 왜 그려케 늣게 떠낫서. 아 참가만이엇거라. 오늘이 며칠이가?』 말을 마치며 그의손까락은 꼬부라섯다·퍼-섯다하도니·그는 나가던걸음을 멈칫하면서

『이런 정신보아 오늘이바로 보름날일세. 올치 그러면 조곰만잇스면 달이뜰려이저 그런것을 공연히그러케 애를썻지. 아이구 그러면 좀쉬어가야지』

말을 마치며 그의몸을 길여앤잇는바위에가기대엿다. 그리고 그의 고개는 건너편 길을 향하엿다.

길엽 소나무사이로 원협축한 남자 한명이 술을 벼려온다. 어것을발견한 월순이가 무섭증 깜짝놀다여 계만히 외처엇다.

『아어구 저녀석이 어리로 오나. 아 그런데 저 고약한 놈을 어런 화미진 곳에서 만낫스니 이걸 어떠케하나.』

그는 어러케 호자사망을하는 동시에 간신히 진정된 그의 가슴은 또 다시 독때거리고 전신은 벌벌떨리며 대접기는 간다 쿵가치 줄엇다.

그는 아프로 나갈 용기는 손톱만치도 업고 오직 그놈의 눈을 피할 궁리뿐이엇다.

그래서 그는 생각도 업는 사이에 그몸은 얼른길 엿 언덕 아래로 나려서며 보지 크지도 안흔 커풀수풀 전처 무섬히 추근히 잇는 적은 개울을 건너 가지고 다시 동편 색시 서잇는소나무를 제겨가며 저쪽 버럿탈로 올라섯다.

아 그런데 내려오던 남자는 어떠한 사람 이기에 월순이가 한번 보고는 마치 서자나 호랑어나 만난듯이 숨도 못쉬고 쥐구멍을 차짓는지 어 남자는다른 사람이 아니다. 영암디란동리에 쓸고잇는 박장수란 총각이여다.

이 총각은 나어가 삼십어 가깝도록 남의 집에서 머슴사리를하고 지냇다.

한번은 월순이가 영남리로 동냥을 갓다가 박장수를만낫는데 장수가 월순을 한번 보고는 곤만 실혼어 사라질로하여서 어디어든지 월순이만 누에띄이면 하던일도 제처노코 월순이 궁둥이를 쪼처다니며 간혹 시럽슨소리도 건네도보고 지근지근 동이 찬물에 붙기사서 맨살한 거절을 서리가는 호령을 듯고 당한것어 한두번이 아니엇다.

그러나 쓸개업는 장수는 월순의 잘생긴 얼굴에 정신이녹고 얼이빠저서 노엽도 부끄럼도 엽치도 다이저버리고 엉두불심에 그의 간절한 마음은

『어떠케하면 죽어도잇지 못할 그 여승을』하는대엇섯다.

그는 이와가튼 욕망어자라고잇든 바면에 그와가튼 계책어 커지고잇섯다.

그래서 그는 어러케 세상을껍며 수봐건할기로 침만 바르고 잇더가는 여니 되것다는 무리한 생각이들어서 볼쇠하죄가생겻게 되엇다.

어느날 장수는 월순이가 다닛게 절로 돌아가게된것을 발견하엿다.

이것을 본 장수는 자기 도모르게 어깨춤 한번으로 쓱추면서 『좋오늘이여 만나주나 내가 오늘을 노치서는 안되고 하고 지고오던 꼴짐도짱에다 공하고 나려와는동시에 그의빠른걸음은 속히산을 바라고 달리엇다.

이때다.

달디는 걸음은 월순이나 장수나 한모양이엇지만 다못 다른 남사의 걸음파 여자의걸음이 달릿다.

그뿐만이니다.

장수는 물론 지름길로갓섯던것이다.

그러든중에 속리산속에장수의 그림자가 월순이보다 걸은 먼저 어른거리엿다.

장수가 소나무 뒤에서월순이가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잇다가 궁모둥이를 나서 차츰차츰 나려와섯스나 월순이가 바위에가서슬때는 길이 꼬부라저서 보지를못하고 월순의뒤를 건너편마루로소 장수의 눈에띄엇다.

월순을 발견한 장수는 번색을하며

『아-저기 가든구나』 하는 소리를조차 그의두 힘잇게 쥐어젓고는 하고 우악한걸음은 충닥충 거리며 월순의뒤를 쪼찻다

-(계속)-

海外短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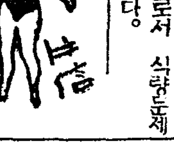
"雜草"의"養分" 米國서發見

미국 『캔사스』시(市)의 『코-란』 『코-단』 『로나-벨』등 세화학자(化學者)는 요즘 그곳에잇는 화학연구회에 대하 [illegible] 예작중이다.

幻影의馬車

▲수연은 어미 서녀배우로 어울이 노른 『유비베』에 감독의 불란서영화는 『쐬나리오』는 『줄리앙·뒤비비에』사십어 구성하엿스나 원작은 『스웨덴』의 유명한 여류작가 『세르마·라겔로프』의 문예작품이다.

▲『유나이트』아래잇는 『메리·픽포-드』 푸로덕슌은 오래간만에 금번에 [illegible] 시작을 착수하엿는데 제일작은 불란서영화 『하르의마지막』의 미국판이라한다.



▲『메트로』회사의 『크로포-드』의 다음 『여성의일흔』이라는것으로 결정되엇다 어제는 세루스니크, 푸로』의 새로운 『스타-』인 『인그리-드, 버-구마렌』은 『스웨덴』에서 수연하여 헛든 하던작품의 재영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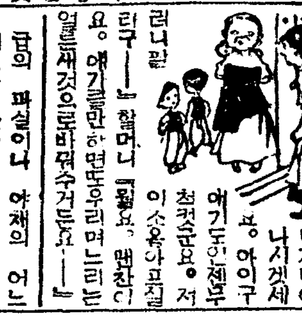
▲『월리암·와이러』감독은 『유니버-살』회사와계약하고 『로자리도, 랏셀』 『부라이안, 에-한』 『버지니아, 보르-스』의 공연인 『빌린오한해』를 제작한다.

平壤金千代座 『吉本』서直營

평양(平壤)의 연극상연극장으로서 오랜역사를 가지고잇는 금천대좌(金千代座)는 동극장의 소유자 재노구태랑(齋藤久太郎)씨와 길본흥업(吉本興業)과 사이에 그동안 교섭이 진행되어서 드디어길본흥행의 직영으로 변하는동시에 경성보총극장(京城寶塚劇場)의 『췌인』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되엇다는바 길본측에서는지금까지 연극상연극장이던것을 영화상설관으로 개장하여 여 메트로영화와 『애르렌』으로 경영할 방침이라는바수일내로극장안파개 개장공사를 시작하리라한다.

평양에서는 상협회조선도 수업스므로 협회에서 사태되지 안흘 번 문제망은 될수잇는대로무 사취하고서 [illegible] 협회의 개 조문제와 그외에 여러가지 방법이 협의되고잇스나 하여튼 오래지안허 한번 파란이 잇슬것만은 상상된다.

새것



어웃집여자 『아이칙, 할머니두 게시면 [illegible]』

우슴

[illegible]

라디오 JODK

쏘프라노獨唱 (二十二日午後八時)

馬順南
伴奏 黃熙文

『쏘프라노』가수 마순남(馬順南)양은 금번동양음악학교(東洋音樂學校)를 마치고 나온 신인으로서 재학중 [illegible] 어가는 고은 목청으로 노래를 불러 [illegible]

(一) 나의집…(슈-벨트曲)
(二) 가을에…(프란스曲)
(三) 子守歌…(독 民謠)
(四) 歌劇『파우스트』中 寶石의노래…(구-노曲)
(五) 魔王…(슈-벨트曲)
(伴奏 黃熙文)

家庭時間 (二十二日午後一時十五分)

家庭과社交

李莫乙順

가성 대가정의 교제는여러가지점에서보아 대단필요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부와협의사교가 업는가정은 가정의 향상발전상으로 못할것이여러가지 생활과정 예잇서서 불편을느낄것입니다. 그러나 [illegible]

講演 史實로본內鮮一體 (二十二日午後七時三十分)

精動朝鮮聯盟理事 鄭僑源

내선일체는 정치적의미에잇서서도 물론 일본민의귀결이어니와 사실로보면 그귀결의유리성이 더욱명백하게된다. 요컨대 거국일치산해전부터는 내선간에 혈액의교류와 문화의 교류는 참으로 농후한것이엇다. 가령매를들면 [illegible] 인민이 반도에서 내지로 이주하엿슴 벽서열망시에 [illegible]

二十二日(水曜)

▲午前六時(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時三○分 氣象通報 料理製法 『시주-위스타푸-틴』 日用品時勢
▲正午(東)時報 오늘의여주질것
▲午後零時五分 輕音樂(레코-드)
▲同零時三○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家庭과社交』 李莫乙順
▲同一時五分 講演(乎)蹴球이야기
▲同六時 [illegible]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뉴-스 大氣豫報
▲同七時三○分 講演 『史實로본內鮮一體』 鄭僑源
▲同八時 소프라노獨唱 馬順南
一、나의집 (슈-베르트作曲) 二、가을에 (프란스作曲) 三、[illegible] 四、歌劇 『파우스트』中 寶石의노래 (구-노作曲) 五、魔王 (슈-베르트作曲)
▲同八時二五分 雅樂 李王職雅樂部
▲同九時 野談 忍辱敎子
▲同九時 뉴-스 職業紹介
▲同九時四○分(東)時報 뉴-스
第一放送
▲同一○時 [illegible]
▲同一○時一○分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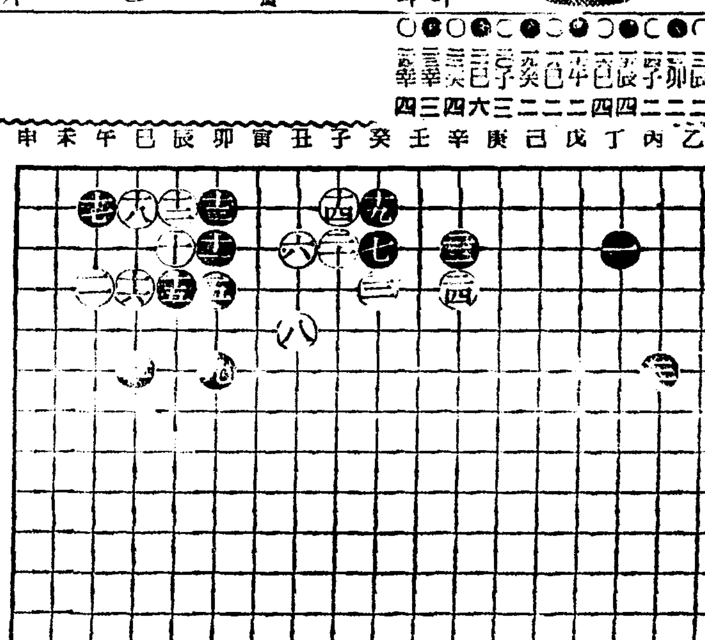
二十三日(木)

▲午前六時(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十時三○分 氣象通報 衛生메모 日用品時勢
▲正午(東) 時報 오늘의여주질것
▲午後零時○五分 歌謠曲(레코-드)
▲同零時三○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家庭』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노래공부(一)금붕이傷
▲同六時一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分 라디오時讀本
▲同七時 뉴-스 大氣豫報
▲同七時三○分 精動時間 『[illegible]』
▲同七時四○分 講演 [illegible]
▲同八時 西道歌謠 一、朴淵瀑布 四、[illegible]
▲同八時三○分 라디오小說 [illegible]
▲同九時 歌詞 一、將進酒 金花香、李月色 大笒 金永根 杖鼓 李斗峰
▲同九時三○分 뉴-스解說
▲同九時四○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同一○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時一○分 中等國語講座(五四) 金鳳姬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城)管絃樂
▲同四時三○分 (東)大相撲實況
▲同七時四○分 (東)物語
▲同八時
二○分 (東)詩吟
▲同九時 (東)드라마
(東)時局講話
▲同八時三○分

新綠名碁譜

左隅에風雲漸迫 白一○은地上青草出

觀戰記 權秉郁



白 金史楚 ·黑 金秉浩 (四日目出)

昨日에 白八은 [illegible] 처음 잘 [illegible] 하나 이도 [illegible] 白一○까지 [illegible] 그대로

[illegible]

濕布に エキホス

感冒、肺炎、中耳炎、扁桃腺炎、神經痛、로이마치스、打撲痛、捻挫、齒痛、火傷等

右는어느거나エキホス의好適症으로서エキホス를塗布하면特有의鎭痛과保溫의兩作用에依하여速히炎症을업새고疼痛을輕減하며熱을下降시켜서자못爽快한感을줍니다

包裝 一○○瓦 二五○瓦 五○○瓦 一瓩

グアヤコール エキホス

結核性肋膜炎、腹膜炎、淋巴腺腫(瘰癧)等에는エキホス姉妹品인グアヤコールエキホス의使用에依하여効果一層顯著함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株式會社 塩野義商店
製造元 二巴合名會社 大阪市東區道修町

包裝 一○○瓦 二五○瓦 五○○瓦

信用있는藥店에 エキホス愛用販賣中

A—207(15) T

明治座
5月20日——26日上映時間表
隊長ブリーバ 10·30 2·10 6·20
ニュース 12·03 3·43 8·03
旅する人人 12·13 3·53 8·13
大週豫告 水戶黃門·探偵合戰·叩き出された幸福

京城寶塚劇場
廿一日ヨリ廿八日マデ 黃金座改め
仇討交響樂 12·15 3·20 7·00
ニュース 10·30 1·45 4·40 8·20
放浪の王者 10·40 1·45 4·50 9·0
平日連續二回入替ナシ 日曜祭日一回入替シマス (早朝割引有り)

京劇
女の魂
富川の血煙
ニュース

若草東寶
5月19日の上映時間表
銀翼の乙女 9·30 12·20 3·15 7·00
大相撲ニュース 10·45 1·35 4·30 8·30
庭の千草 10·50 1·40 4·35 8·35
平日連續上映二回(日曜は十時より上映)

大陸劇場
22日ヨリ上映時間表 日曜10時
婚約リレ 11·00
ニュース 12·16 3·10 7·00
春の旋風 12·31 3·25 7·15
婚約リレ 1·46 4·36 8·25
次週 私には夫がある

第一劇場
五月二十一日より 四日間特別興行
ユナイト社超大作 監督アーチー・メーヨ
マルコ ポーロの冒險 ゲエリー・クーパ主演
ロッパ歌の都へ行く
美しき海賊の旅
次週豫告廿五日より
金語樓・[illegible] 幼き者の旗

新富座
五月廿一日 廿二日 大衆料金階下拾錢均一
東寶映畫社大作 君を呼ぶ歌 主演 伏水修 月田一郞 江戶川蘭子
パラマウント社特作 國境挺身隊 主演 ウイリアム・ボイド
新興東京撮影所作品 海棠の歌 主演 [illegible]
特別豫告

東洋劇場
大史劇 『林巨正傳』 前後篇
電光(二)一五四四番

優美館
五月廿一日より大公開 料金 廿錢均一
日本版 北京の嵐
コロムビア超特作 荒野の巨人
足輕女大鑑
事變ニュース

桃花劇場
五月二十一日 二十二日 [illegible]
ロッパの新婚旅行
愛情部隊
SOS氷山
君を呼ぶ歌

洪吉童傳 前後篇大會